

2026. 03. 05. 09:47

한참만에 다시 일기를 쓰네요. 은근히 바빴습니다. 수술도 있었고
아마추어 무선 관련 일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
했습니다. 그로인해 주가가 크게 흔들렸고 저는 석유관련 주식과
LNG 관련 주식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48명 이상의 이란 정부 지도자를 살해했다고 하며
현재 누가 이란 정부의 대표인지 아무도 알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누가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든간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이라크와 이란에 살고 있던
쿠르드족을 선동해 지상전이 벌어졌습니다.

... 처음에는 "이건 핵개발 종단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그냥 미친 짓이다"
고 생각했는데, 오늘까지의 과정을 보니 이번 전쟁은 이란의 핵개발
을 저지하려는 것도, 민주화를 시키려는 것도 아닌 그저 "이란을
무력화시켜 이스라엘과의 대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이스라엘의
대리전쟁"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미국 돈을
쓰고 미군을 죽여가며 이스라엘 대신 싸우고 있는 것이네요.

원래 저는 1개월 정도의 전쟁기간을 예상했는데 쿠르드족의 지상전이
등장했으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증등에서 대부분의 기름을 사는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것이고요. 이로써 미국은 자국은 오일쇼크를 당하지
않으며 중국에 큰 피해를 입히고 미국산 오일까지 대량으로 판매하는
일타쌍피를 달성했습니다.

오일쇼크, 특히 한국의 경우는 피해를 많이 입을 것입니다. DXY도
오르겠군요. 저야 자산 대부분이 달러 형태라서 큰 피해는 없겠지만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 걱정입니다. 이거 빨리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부독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고요. 어차피 저야 예정대로만 움직일
것이라 큰 상관은 없지만 고민이 늘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11반 20번 이라고 하네요.
장래 대학 목표를 서울대 의예과라고 썼다고 합니다. 진짜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습니다. 서울대를 갈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의대는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혼자 생각한 것인데 이번에
IC-9700을 사고나면 더 이상 취미로, ham 생활로 돈을 쓰는 것은 없애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혹시 딸아이가 지방에
갈 것도 대비해서요.

내일은 쉽니다. 가능하면 무전기 챙겨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좋으려나... 당장 생각이 나질 않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생각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